

국제유가, 리비아와 함께 안정되나?

리비아 사태로 10-20달러 상승 ... 내전종식 소식에 유가하락 전망

리비아 반군의 Tripoli 진격으로 카다피(Muammar Gaddafi) 국가원수의 축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원유시장에서도 유가의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15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 온 리비아가 내전사태로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수급차질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왔던 만큼 내전이 종식되면 리비아가 수출시장에 복귀해 공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시장을 담당하는 앤드루 리포우 애널리스트는 “8월22일 원유시장에서는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안도감의 표시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리비아의 수출량은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리비아산 원유는 다른 원유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품질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심리적 타격이 컸다.

리비아산 원유는 유황 성분이 적은 고품질의 원유(Sweet Crude)이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유황성분이 많은 원유(Sour Crude)를 정제할만한 시설이 적기 때문에 리비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원유 수급 면에서 리비아 사태로 인한 충격은 유럽이 미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비아가 수출하는 물량의 85% 이상을 유럽이 수입하고 그 중 1/3 이상은 이탈리아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아시아가 수입하고 미국에 수입되는 물량은 5% 수준이다.

따라서 내전 초기 리비아의 Muammar Gaddafi 국가원수가 석유시설 파괴를 명령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가가 폭등세를 지속하기도 했다.

원유시장의 전문가들은 리비아 사태가 국제유가를 배럴당 10-20달러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지만, Muammar Gaddafi 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 내전이 끝나도 국제 원유시장에서 유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제 원유시장은 수급 문제보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기의 향배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비아 내전종식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지표와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내전이 종식돼도 불안한 정치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석유생산과 수출재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유담당 애널리스트인 짐 리터부시는 “심리적으로는 매도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재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세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22>